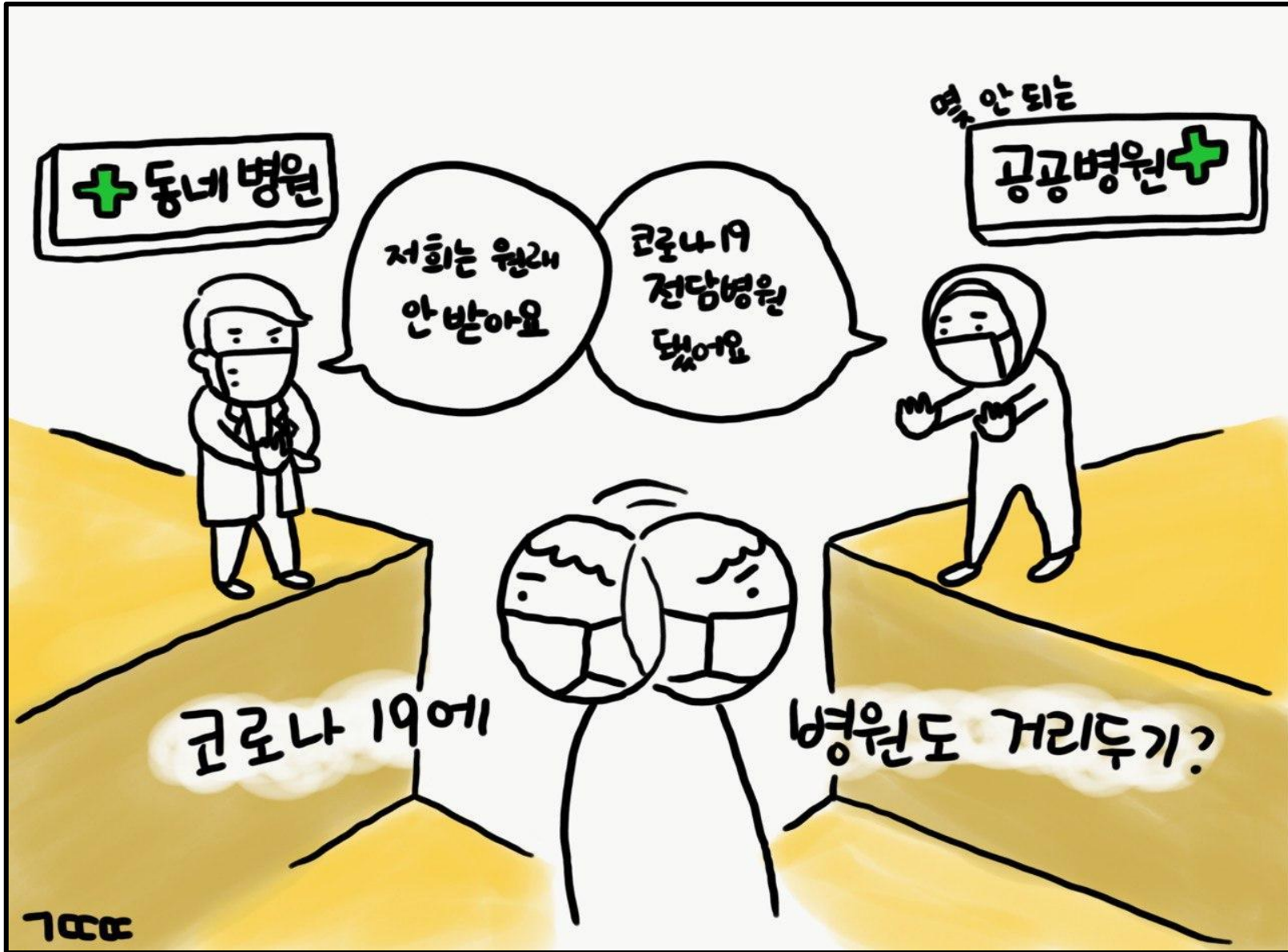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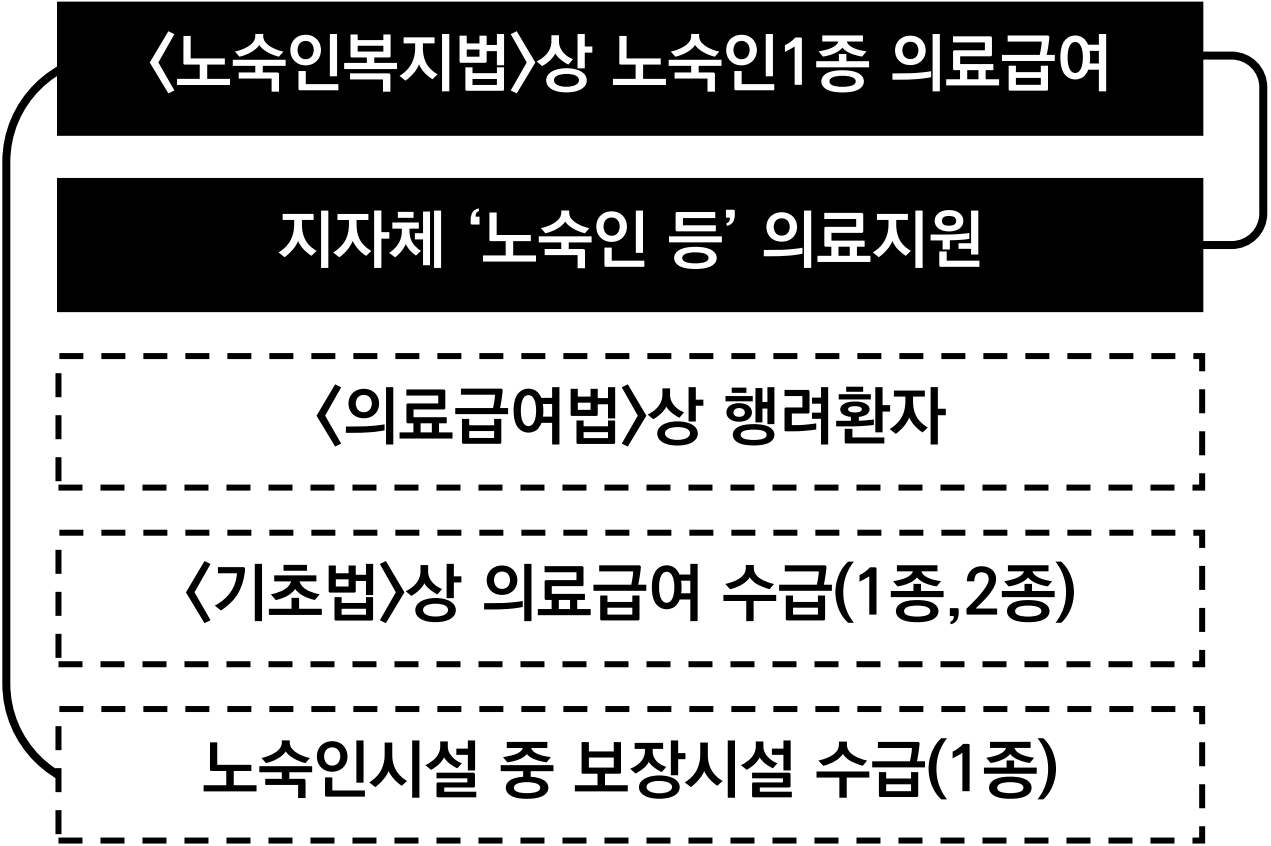


흡리스와 공공병원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와 의료공백

홈리스



노숙인 진료시설

“노숙인 중인 수급권자는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와 의료공백

구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계
서울	25			4	6	35
부산	16	8		2	1	27
인천	5				2	7
대구	8				2	10
광주	5					5
대전	5			1	1	7
울산	5			1		6
경기	44		1	1	3	49
강원	13				5	18
충북	13				2	15
충남	11		1		3	15
전북	14	1	1		2	18
전남	22			2	2	26
경북	23			1	3	27
경남	16			1	1	18
제주	1			1		2
세종	1					1
계	227	9	3	14	33	286

전국 노숙인 진료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21,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재구성.
 2021.4.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와 의료공백

서울시내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 현황



2021년 인구지경 1개소 제외하 나머지 모두 ‘공공병원’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와 의료공백

서울시내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현황 (2021.2.2.)

연번	노숙인진료시설명	외래	입원	수술	비고
1	OO시 A병원	○	○	○	코로나-19전담병원
2	B병원	○	○	○	코로나-19전담병원
3	OO시 C의료원	○	○	○	코로나-19전담병원
4	D병원	○	중단	중단	코로나-19전담병원
5	OO시 E병원	○	중단	중단	코로나-19전담병원
6	OO시 OOF병원	○	중단	중단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 일부 분야 진료
7	G	○	중단	-	코로나-19전담병원 정신질환 특화병원
8	OO시 H병원	○	○	-	정신질환 특화병원
9	OO시 I병원	○	○	-	코로나-19전담병원 결핵 특화병원



“수술 치료를 받고 나서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홈리스 당사자 안**, 2020. 12. 3. 기자회견 발언 중

자료=서울시, 2021: 국가인권위, 2021에서 재인용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와 의료공백

2021년 강선우 의원
국감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

의료공백 야기한

노숙인진료시설 제도,

도대체 왜?

< 강선우 의원 >

자립지원과

64.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 전반적 검토 필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담당자 : 자립지원과 금지현사무관(044-202-3074), 자립지원과 김지은주무관(044-202-3078)

○ 노숙인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기존 노숙인 의료급여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 지속적 신원확인 어려움에 따른 자격관리 문제 및 중복투약 등 노숙인 건강권 약화 등 예방,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른 의료급여 1종 대비 추가 혜택(본인부담 전액면제 등) 부여 등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1~'25) 수립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노숙인의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신규 발굴·지정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급성기 치료 이후 다시 '비적정 거처'로

구분	요양병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1
전북	1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3

-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요양 필요하나,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재활/요양병원 전국 3개소에 불과
 - 복지부, 2019년 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내용 삭제. 그러나 추가 지정은 여전히 미미
- 간병인 지원 없어 보호자/간병인 없는 홈리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없이 입원치료/수술치료 난망
 - 서울시 노숙인 진료시설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4개소 일부 병동뿐!
- 퇴원 후 노숙인 등 지원체계 연계 시스템,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 복지지원체계와 의료기관 간 연계 안 됨. 특히, 거리홈리스의 경우 퇴원 후 회복기를 거리에서.

좋은 공공병원, 홈리스 의료지원 '내실' 다져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입원과 수술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병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하는 노숙인진료시설(공공병원) 확대!

• 치료 후속 연계 체계 마련

- 의료-주거 연계 제도화 통해 치료 및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 연속적으로 지원!
- 최소 입원한 홈리스가 '적정 주거' 없이 퇴원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퇴원(후 지원)계획 마련!

영국, 병원생활 지원 프로그램 (Pathway)

일반의, 간호사, 의료 전문가(health professionals), 주택 전문가, 홈리스 동료로 구성된 'Pathway'팀

협업을 통해 홈리스 환자 상시 지원

첫 단계에서 주거상태 조기 확인

"퇴원 계획 수립을 통해 적절한 숙소로 연계"

미국, 단기회복지원 프로그램 (Medical Respite Care)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나, 스스로 회복하기엔 질환이 심한 홈리스를 위한 급성 후 단기 의료지원 프로그램

[7가지 기준]

- 1) 안전하고 질 좋은 숙소의 제공, 2) 질 좋은 환경,
- 3) 급성기치료/전문치료/지역사회로의 적시 전환,
- 4) 급성 후 임상치료 제공, 5) 비(非)임상 서비스 제공,
- 6) 퇴소 후 적정 진료 전환 촉진, 7)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